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15, 호세아, 2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호세아 2부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취한 이 백성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은 때때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방문하셨고, 삶의 길의 모든 단계에서 주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구획화하여 영적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당신께 살아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사랑,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심지어 회복에 관한 호세아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든에서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경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교가 항상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학교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유월절 저녁 식사에 관한 시트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4월 6일이에요. 친구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에서 돌아온 후 첫 수업 시간에 제가 모을 돈을 지불할 봉투를 저에게 주시면 현금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비용은 12달러인데, 그 금액을 2달러 더 줄여 10달러로 줄여줄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성인은 20달러이므로 식사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North Shore에서 하고 있는 일의 훌륭한 예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예배팀을 모아서 랍비와 함께 유월절 음악을 작업합니다.

이는 기독교-유대인 관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의 공통 주제인 구원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적인 사건을 축하하십시오. 가장 오래된 축일은 디아스포라에 있든 본토에 있든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성경에 뿌리를 둔 가장 중요한 축일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구속, 유월절은 유대인의 귀향, 가정생활을 위한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4월 6일 수요일 저녁에 Shirat Hayyam 사원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4시 45분에 떠날 것이고 아마도 9시쯤 캠퍼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수업 또는 휴식 후 두 수업까지 바로 이름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처음으로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우리는 호세아서의 몇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전반, 또는 유대인 친구들이 부르는 대로 기원전(BC), 서력 이전. BCE라고 적힌 책을 집어든다면 그 책은 대개 유대인 작가가 쓴 것입니다.

AD는 서기시대(CE)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관한 몇 가지 견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다소 문제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만든 마지막 요점은 Abraham Joshua Heschel이 제시한 관점이었습니다.

즉,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분열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감정, 깊은 감정을 감정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자 그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그래서 헤셀은 그 경험이 주로 선지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구별하시고 그의 뜻과 가장 깊은 연민과 관심을 그들에게 전달하셨다는 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연민을 심리적,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계시의 전달자였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변화시켜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지자에게 신성한 동정심, 신성한 파토스의 느낌을 알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중요한? 예. 그러나 그의 결혼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객관적인 경험으로 연기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에 대한 경험은 선지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고 싶은 다른 간략한 보기 한두 개. 첫째,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죄악적인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결혼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녀는 악한 여자가 아니었고 간음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후 매춘 생활로 전환했다고 이 견해는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1.2절의 명령은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돌이켜보면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불성실한 아내를 데려갔을 때 그 부르심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고멜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느니라. 그녀는 이런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음란한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예방적으로, 예상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호세아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글을 쓸 때 그 비극적인 경험을 반성합니다. 고멜의 미래에 대한 충실함은 그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헤셀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의 각주에서 여기에 사용된 특정 히브리어 표현이 창녀나 창녀가 될 운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으로 하나. 그래서 그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다소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 때때로 해석되는 또 다른 방식은 자연적 견해, 문자적 견해, 액면가적 견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세요. 따라서 이 견해는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결혼하도록 선택하신 악명 높은 방탕한 여자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과감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게 선지자와 그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훑어보면 이사야를 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는 그가 벌거벗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다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셨는데, 이는 가부장적

세계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며, 그를 상당한 의심의 대상,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우 특이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사람들의 생각에 은혜나 심판의 메시지를 지울 수 없게 새기도록 지시하기 위해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요점이나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의 상황이 심각함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견해는 다시 한번 간단한 언어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매춘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끝났고 그들은 다른 관계, 즉 신성한 매춘을 포함하는 우상 숭배적이고 음란한 가나안 종교 중 하나에 빠졌으며, 이스라엘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 관점이 어떤 주요 방식에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결혼 자체를 살펴보면, 다시 한 번 호세아의 하나부터 셋까지의 큰 견해는 전기적입니다. 선지자 자신과 고멜의 결혼, 이 실패한 결혼 이야기, 그리고 결혼 생활의 점진적인 악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을 묘사하면서 이 처음 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그 자신의 삶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선지자의 삶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암시하시기 때문에 첫 장에서 세 자녀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가 고멜에게 갔고 그가 그에게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실 세 자녀 각각의 이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늘 나옵니다. 그를 예수 라 부르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메시아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마태에 관한 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태어날 이 사람의 신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진술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매우 자주 교훈을 전달합니다.

높임을 받는 아버지 아브람은 많은 백성, 즉 하다한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즈하크, 이삭, 웃음, 그리고 웃음은 서사 등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함마, 로아미.

그럼 여기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작은 단어, 즉 첫 아이만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생략이 중요한가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매춘부임을 암시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줄 사이를 너무 많이 읽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러나 이스르엘은 첫째 아이이고 이스르엘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는 이스르엘이라는 이중 말장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의 흘으신다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듯이, 하나님은 뿌리거나 내어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하되 조금 있으면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인하여 예후의 집을 벌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멸하리라. 이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로 흩어진 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모낫세의 아들인 브나이 마나사라는 표현이 매우 흥미로운 운동 중 하나인 곳이 바로 이곳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인도 지역까지 갔던 수백 명의 유대인 중, 북쪽 왕국에서 흩어진 후 점차적으로 나아갔고,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아, 아마도 7개월 전에 정부와 협력하여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인이 돌아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여러 도시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도시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먼 곳으로 흩어짐으로 인해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호세아 시대의 특정한 관습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문화변용 과 그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많은 적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흘어짐이 약속되었고,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가 공격해 오면 북쪽 왕국은 분열될 것이지만, 그 전에도 이미 기원전 745년에 디글랏 빌레셀이 들어와서 이 추방 정책을 시작하여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앗수르 제국의 가장 먼 곳에서 가져와 북쪽 왕국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마리아 문제의 근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호세아가 일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앗수르 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 흘어짐이나 포로생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다시 심으시거나 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이라는 측면에서 흘어지는 것과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심거나 뿌리는 것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두 지파인 에브라임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7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 왕국의 최종 전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경우에 북쪽 왕국을 진노시키셨습니까? 그는 예후의 집을 가리킨다.

수도 제후. 예후, 당신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마차를 격렬하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항상 멀리서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벽 위에 보초를 세워 쌍안경을 들고 지평선 위로 먼지구름을 내다보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호와의 뜻을 옹호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휘장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호세아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호세아가 설교하는 설교를 도끼질하는 사람입니다. 글쎄, 그는 이 모든 일을 매우 자기 의지적이고 피에 짚주린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과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죽음에 대한 가장 생생한 묘사 중 하나가 예후의 열왕기하 9장에서 발견됩니다. 예후는 호세아가 반대하는 바알 숭배를 모두 밀어붙이는 여자를 찾습니다. 아합과 결혼한 두로 왕의 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체로 제거되어야 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피는 벽과 말에 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짓밟습니다.

사람들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녀가 쓰러진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러 갔을 때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만이 그녀의 유일한 남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는 모든 그래픽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려는 열정을 가진 이 여성. 그래서 이것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피에 짚주린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10:12~14:42에서는 아하시야의 방백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에서는 이것이 이스르엘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르엘은 고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스르엘, 그 골짜기 전체를 하나님의 암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이 단어가 그리스화, 헬레니즘화되어 이스르엘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에스드라엘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갓 소즈 밸리.

그래서 예후는 이스르엘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남쪽 왕국의 왕 중 하나인 아하시야 왕을 살해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두려운 범죄였으므로 그들의 죄는 북방 왕조가 멸망해야만 속죄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나가서 우지나 기관총, 소총을 들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숙청하기 위해 법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 복수심은 너무나 쉽게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하여 사회를 고갈시키고 부자가 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부유하고 살찐 고양이들을 무너뜨리려는 견해는 사람들이 압제자로부터 그들의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종종 산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큰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의 파괴도 무언가에 대한 그러한 반란이나 반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 사이에는 진정한 긴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압제자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고 잘못된 반면에 때로는 의의 옹호자가 되기 위한 훌륭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려는 열정에 따라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겠습니까? 어쨌든 예후는 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북왕국의 무기인 활과 화살인 활을 부러뜨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여 북왕국의 세력이 끝날 것이며 활을 꺾을 능력이 없음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국제 도덕성과 생명 존중 측면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사물에 비추어 정당화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고대 세계에서 삶의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전쟁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지만,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게 하십니다. 그냥 나가서 네 일을 하지 말고, 정의로운 자유로 국경을 넓혀라. 그러나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항상 통제와 태도,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 갖고 계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전쟁이 거룩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도 성경의 역사가 남쪽 왕국에 유리한 편견으로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속적인 다윗 왕조입니다. 북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분리되었으므로 북방 왕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거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통치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보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꽤 괜찮은 일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쓰여지는 편견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든 도서관의 모든 교과서가 특정 관점을 옹호하기 위한 도끼는 아니더라도 편견이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고려할 때, 특히 학생으로서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주제를 연구하고, 모든 읽기를 귀납적으로 수행하고, 자료에 들어가고, 어디로 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선택하는 것보다 증거가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논문과 주장하려는 입장을 옹호하는 책을 구입하고 정중하게 당신의 관점을 좋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다른 책이나 다른 주장을 무시하십시오. 객관적인 학문은 존 브라이트(John Bright)가 말했듯이, 성경을 열 때에도 전제론적 주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경험과 특정한 주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성경을 엽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인 백지(tabula rasa)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순전히 문학 작품일 뿐이고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시작한다면 불일치로 인해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결국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루는 출발점이라도, 연구를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선험적으로 과제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관점에 편향된 오류가 있는 인간의 문학 문서라기보다는, 보다. 당신은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항상 신학의 두 가지 큰 전제와 이 독자 비평 세계의 전제 중 하나를 가지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의 관점은 다음 사람의 관점만큼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고 잘 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의 전제가 아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본문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뛰어들어 우리가 장르 내에서 성경의 문법적, 역사적 연구라는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관점에서 작업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작가가 내 방식대로 보도록 하기보다는 작가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고메르, 베르스, 이스르엘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다시 한 번 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세 장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한

회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 하마 입니다. 히브리어로 rhm이라는 어근은 동정심과 자비로운 관심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장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rhem은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불쌍하지 않다고 말할 때, 이는 장 부위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둘째 딸을 낳으니(6절) 그 이름을 로라 하니 이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뜻이라. 즉,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동정심과 자비와 은혜를 보이셨으나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7절로 전환하여 “내가 한동안 유다와 함께 거기 머물겠노라”고 말합니다. 너희 둘 다 추방될 거야.

북왕국, 앗수르로 유배됨.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 그러나 나는 지금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그 끈을 더 길게 펼칠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당분간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기리니 너희 가 앗수르의 대적에게서 건져지지 아니할 곳에서는 유다를 그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시리아 공격. 그러나 나는 남왕국의 대군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7절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자매 곧 남방 나라 유다를 구원하리라.

나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산헤림에 대한 암시라고 믿습니다. 701년에 산헤림이 이미 유다의 성벽 도시 46개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놀라운 히스기야의 물 터널은 실로암 못에서 기혼 샘까지, 저기 기드론 골짜기 계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적절한 물 공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위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 185,000명을 밤새 전복시킨 이 놀라운 일(열왕기하 19장)은 이 경험을 말해 줍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는 이것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시리아 군인들의 진영을 통해 죄에 의해 퍼졌던 선페스트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200,0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 최대 규모의 갑작스러운 파괴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살아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암시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치하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15년 동안이나 살려냈습니다.

이 독특하고 경건한 왕에 대해 말하는 이사야를 포함하여 평행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모든 악기와 함께 음악을 성전 예배에 도입한 사람인 히스기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야, 유월절을 지내고 남북 사이의 갈라진 틈을 고치자고 말한 착한 사람 히스기야.

우리는 여러분을 북쪽 왕국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해냈고, 과거 역사를 치유하려는 노력에 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 왕을 거쳐 히스기야를 뒤따른 요시야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왕국은 586년까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닌 로아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혼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적인 해고가 아닌 일시적인 해고일 뿐이었다. 이는 시내산에서 시작된 셋째 아이,

아들의 탄생을 통해 확실히 암시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공식.

잊어 버려. 당신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있을 것입니다.

영구적인 거부는 아니지만,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치적 실체로서 북쪽 왕국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언약 관계의 이러한 단절은 나중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회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이어지는 그 짧은 말씀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바다의. 이것이 동양적 과장법이다. 즉,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양적 과장법.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모래 같아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또 저희에게 이르기를 로아미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로다

그리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일 것이다. 이제 그는 시간의 복도를 훨씬 더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별 왕이 아닌 자기들을 위해 북왕국의 왕을 세워 남왕국의 왕과 동시에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101장을 분열왕국에 대해 공부할 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약 20명의 왕, 남쪽에는 약 20명의 왕이 포함된 식료품 목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동시에 또는 동시에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적어도 한 명의 통치자와 함께 군주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두머리 한 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것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메시야 시대로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스스로 한 명의 우두머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증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언약의 가족이 확대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람나무에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기 있고, 이방인들은 줄기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것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암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확장된 사상, 새로워지고 회복된 백성의 원리를 받아들여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뜻을 내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확장된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형벌, 이스르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지 못한 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백성이 아닌 완전한 소외입니다. 이제 2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러한 사상을 이어갑니다.

이 장은 2절에 나오는 호세아 자신의 결혼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잘못된 결혼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그림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2의 단어는 고대 이혼 공식을 연상시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간청하고 간청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그 여자의 벗은 몸을 벗기라. 이는 간음에 대한 형벌이었으며 앗시리아의 네즈 서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간음에 대한 이런 형벌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바알과 다른 신들, 가나안 제도에서 바알은 그 숭배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빵, 물, 양털, 아마, 기름, 음료. 그들은 모두 자연의 신인 바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번식을 주시는 분이 땅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도록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쳐라. 8절에는 성경의 농업 삼총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알 숭배에 오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농업 필수품이 바로 바알 숭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앙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입니다.

경제는 곡식밭, 밀과 빵을 만드는 일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원이고 감람나무는 기름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거나 결합되어 땅의 주요 요소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안 체계에서는 바알이 이러한 것들을 제공했다고 믿었던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런 것들을 그녀에게 준 사람이 자연의 신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고 합니다. 나는 창조의 신이다. 나는 너희가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폐하시고 바알들 때문에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없애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 2장의 끝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멜의 것입니다.

이 화해는 남편의 주도로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큰 혼인 잔치가 일어났던 것처럼, 본문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먼저 통로로 내려와 신부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믿는 이유 중 하나인 언약의 신적 개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완전히 깨뜨리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비록 그분의 백성이 제멋대로이고 불완전하며 그분 자신의 신실하심을 위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언약의 끝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서 결혼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성약, 성약으로서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복원과 저는 결론적으로 이 단어를 빨리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기서 영구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영영하고 영원히 정혼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결혼 공식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현대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zedek 또는 의로움입니다. 그는 내가 의로움 속에서 영원히 당신과 약혼하겠다고 말하며 올바른 행동을 암시하고 옳은 일을 행합니다, zedek .

둘째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정의롭게 당신과 약혼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하고 평등, 공평하고 평등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쉬팟(mishpat)을 의미합니다. Heschel은 mishpat에 대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멋진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셋째, 헤세드(hese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일종의 영구적이고 끈질긴 충실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Paul Borgman과 Glenny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항상 그와 함께 있으니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충실하고 확고하며 버티고 끈질기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라하임은 네 번째, 자비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주의와 관심으로 감동하라는 이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이런 연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munah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가 emunah 안에서 신실하게 너와 약혼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전통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박국 이야기를 할 때 다루겠습니다. 의인은 예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하박국이 원래 그랬던 것과는 다른 견해나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확고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덱, 미스팟, 헤세드, 라하임, 예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말은 역사적인 결혼 공식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훌륭한 결혼 생활의 특성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평적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결혼을 원합니다. 이것들은 결혼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수업에는 제가 그곳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15회 호세아서 2부입니다.